

사업계획 발표 넉달만에 금남로 잔디광장 백지화

사업성 검토 등 기본절차도 없이 추진

“바닥돌 깔아 관광지형 저속도로 조성”

어등산 개발 뒤집기 이어 시정신뢰 추락

광주시가 민선 5기 ‘광주희망 프로 젝트 10대 사업’중 핵심사업인 ‘금남로 518m 잔디광장’ 사업을 4개월 만에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하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표 당시 사업주체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협의는커녕 시민 여론수렴과 해당부서의 사업성 검토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밟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시민의 휴식처를 만들겠다던 애초의 약속을 깨고 골프장 단독개장을 승인해준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에 이어 또 한번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 행정의 신뢰도마저 추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시 고위 간부는 9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금남로 4거리 구간을 잔디공원으로 만드는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사업 발표 후 다양한 검토를 한 결과 현실성이 없다

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주변에 대해서만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금남로 1~4가 도로구간은 아스팔트를 걷어낸 뒤 바닥돌 등을 깔아 관광지형 저속도로로 새 단장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통령공약 요구 사항으로 정부가 전일발령을 포함한 일대 건물을 수용해 공원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6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60억원을 들여 동구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금남로 4거리까지 총 518m 구간을 잔디가 깔린 ‘5·18민주·평화녹색 광장’으로 조성한다고 발표했었다. 당시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를 따라 폭 3~4m의 실개천을 만들고, 현 6차로인 금남로를 양쪽 1차로만 터 버스과 영업용 택시만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놔었다.

하지만, 사업 발표 후 일부에서 ▲교통체증 ▲도로차단에 따른 상가 침체 ▲지하시설물(금남로지하상가)

누수 우려 ▲완공 후 잔디 관리 비용 등을 놓고 비판여론이 일기도 했다.

사업주체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설계도상 화강석을 깔기로 한 도로를 잔디광장으로 교체할 경우 시설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사후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광주시청 내부에서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사 주무부서를 놓고 각 부서간 서로 떠넘기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인 공사구간이 잔디공원으로 바뀌게 되면 사업주체가 애매해져 도로부서와 공원부서가 서로 맡지 않겠다며 ‘핑퐁게임’을 벌인 것이다.

시는 이에 앞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에서도 애초 시민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테마파크(유원지)와 골프장을 동시 개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가 골프장을 먼저 개장하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그대로 수용해 지역민의 거센 반발을 샀다.

시 관계자는 “광주의 상징인 금남로 일대를 새롭게 바꾸는 계획을 발표한 뒤에도 조직 내부에서조차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를 할 것은 큰 문제”라면서 “시청 내부에서도 성급한 사업 발표에 대해 반성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추억&아시아’...충장축제 개막

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개막한 ‘추억의 7080 충장축제’에서 주민과 외국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국에서 참가한 단체들이 거리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추억&아시아’를 주제로 한 이번 충장축제는 오는 14일까지 계속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배추·무값 급등...울 김장비용 20% ↑

올해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최소 20%는 더 들 것으로 전망됐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면 배추와 무값이 더 뛰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달초 매장 소매가 기준 4인 가족 평균 김장 규모인 배추 20포기로 김장을 할 경우 총 비용은 30만569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6%나 증가했다. 특히 배추 가격이 20포기에 7만5600원으로

지난해의 2배가 넘는 112.4%나 증가했고, 무도 10개에 2만4800원으로 동기 대비 50.3% 상승했다.

쪽파 역시 5단(2.4kg) 기준 1만99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1.0%나 값이 뛰었다. 대파는 2단(2kg)에 7160원으로 80.8% 올랐다.

김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춧가루는 아직 시세가 형성되기 전이지만 지난해보다 18.2% 상승한 9만5040원(1.8kg)이었다.

새우젓 역시 1kg 기준 지난해보다는 44.4% 감소한 1만4400원이었지만, 2010년보다는 135.6%나 값이 뛰었다.

마트 관계자는 “7월부터 계속된 폭염과 잇단 폭우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고랭지 배추 출하량이 급감한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김장철인 이달말과 내달초 가격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배추 가격 감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장 비용 얼마나 더드나			
10월 초 이마트 소매가 기준			
	2010	2011	2012
배추 (20포기)	129,000	35,600	75,600
전년대비	▲72.4%	▲112.4%	
무 (10개)	32,500	16,500	24,800
전년대비	▲69.5%	▲80.3%	
대파 (2단)	7,960	3,960	7,160
전년대비	▲50.3%	▲80.9%	
마늘 (1.2kg)	14,688	10,746	10,746
전년대비	▲26.8%	0.0%	
생강 (120g)	1,400	1,072	1,744
전년대비	▲23.4%	▲62.7%	
새우젓 (1kg)	11,000	25,920	14,400
전년대비	▲135.6%	▲64.4%	
고춧가루 (1.8kg)	50,400	80,400	95,040
전년대비	▲59.5%	▲18.2%	
총 김장비용	324,348	253,498	305,690
전년대비	▲21.8%	▲20.6%	

지자체 ‘전기요금 폭탄’

도시철도, 상·하수도, 가스 등 공공부문 요금

11월 30% 올라...서민물가 인상 도미노 우려

광주·전남 등 전국 일선 지자체들이 때아닌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됐다. 도시철도 등 그동안 공공부문으로 분류돼 적용됐던 할인혜택이 사라지면서 전기료가 최대 30%나 급등하게 됨에 따라 많게는 수백억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지난달 8월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해 공공부문 전기요금 추가부담금이 약 3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은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가스, 물류터미널, 냉·난방시설 등을 말하며 그동안 전

기요금이 저렴한 산업용전력 ‘갑’으로 선택 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11월 1일부터는 30%가량 비싼 산업용전력 ‘을’로 의무 적용토록 약관이 개정돼 전기요금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이 때문에 광주도시철도공사만 하더라도 지난해 36억원이었던 전기요금이 올해에만 40억원으로 늘어나고, 내년이면 52억원까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를 비롯한 상·하수도 등 앞으로 추가될 전기요금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상하수도 관리 등을 맡고 있는 전남지역 22개 시·군도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타 자치

단체와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 최근 약관 변경으로 인한 지자체 부담액을 조사한 부산시의 경우 200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최근 열린 행정안전부의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중점 논의됐다. 공공부문 전기요금 인상은 서민물가와 밀접해 도시철도 등 서비스 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들은 이 회의에서 공공부문 전기요금 약관 개정 철회를 건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공부문 전기는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할인혜줘야 하고, 요금 인상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www.tphtoyota.com

비교할수록 << 토요타

연비 좋은 차에
파워를 기대하면 안 된다?

연비도,
파워도
모두 놓치지
않았다



캠리 하이브리드, 동급 최고 연비 23.6km/ℓ · 3,000cc 이상의 파워



(10월 등록 기준)



TOYOTA
Smile for Tomorrow

차가 커지면 연비는 떨어진다? 연비와 파워가 동시에 좋을 수는 없다? 캠리 하이브리드가 나오기 전에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세단에 최고의 하이브리드 기술이 만나 더욱 강력해진 캠리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세단 역시 비교할수록 캠리입니다

[토요타 브랜드 런칭 3주년 기념] 고객 감사 특별프로모션
36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CAMRY/CAMRY HV/PRIUS)

토요타 광주 062-371-8383 지하철 운천역 3번 출구앞

Law Firm IUS

법무인 이우스 설립인사

국민의 권익보호와 살아있는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지역법조문화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 법무법인 이우스를 설립하였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바랍니다.

구성원
소 개

- 오세욱 대표변호사, 전광주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 8기
- 임선숙 광주광역시 고문변호사, 전/여성민우회 대표 사법연수원 28기
- 서애련 전광주지방법청 청사 사법연수원 30기
- 이병주 전광주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31기
- 강성두 고려대학교학과,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MBA) 사법연수원 33기
- 김정호 광주지방법원사회공보이사, 전남경찰청 인권위원 사법연수원 33기

연 무
안 내

- 업무개시 2012년 10월 4일(목)
- 개 소 식 2012년 10월 19일(금) 17:00
- 업무장소 광주 동구 자산동 379-10(동산빌딩 2층, 4층) tel. 062 233 1600 fax. 062 225 7800

‘이우스’는 라틴어로 ‘법률’, ‘정의’를 뜻하며, 발음이 비슷한 우리말 ‘이웃처럼 시민과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